

레이디버드 컬러즈 컬렉션의 무지개

블랑팡의 여름은 매우 다채로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블랑팡 매뉴팩처는 지난 봄 레이디버드 컬러즈 컬렉션을 선보인 데 이어 이제 착용자의 기분과 개성에 따라 스트랩을 교체할 수 있고 다채로운 컬러로 시간을 표현하는 타임피스를 선보이며 모든 컬러를 선사합니다.

레이디버드 컬러즈 컬렉션에 새롭게 추가된 타임피스들이 새로운 컬러로 스타일리시하게 여름을 맞이합니다. 꼬리를 부채 모양으로 편 공작처럼 눈길을 사로잡는 이번 신제품은 화사하고 컬러풀한 조합이 돋보이는 다이얼과 빠르고 편리한 퀵 체인지 시스템이 장착된 스트랩이 특징입니다.

뛰어난 노하우가 숨겨져 있는 다이얼의 스몰 세컨즈가 조성하는 비대칭적인 구성은 상반부의 더 큰 인덱스 덕분에 전체적인 균형을 이룹니다. 이 타임피스에 사용되는 순수하고 빛나는 마더 오브 펄은 소량만 생산되는 최고급 소재입니다. 이 엑스트라 화이트 마더 오브 펄에 내려앉는 빛은 유일무이한 깊이와 대비를 선사하며, 다이얼에 세팅된 다이아몬드 70 개의 광채와 완벽하게 어우러집니다.

마더 오브 펄에 프린트된 무지개 색상의 인덱스 12 개 역시 세심한 장인 정신과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. 각 컬러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 최소 5 겹 이상의 프린트가 필요합니다. 이 과정은 각 도포 작업 사이에 앵커가 건조되는 데 필요한 시간을 가늠하는 예리한 안목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까다롭습니다. 레몬 셔벗 옐로우, 라즈베리 핑크, 애플 그린, 미드나잇 블루, 화이트 등 여름의 환희를 연상시키는 화사한 컬러의 악어가죽 스트랩 5 종 세트가 이 풍성한 컬러 팔레트에 추가됩니다. 각 스트랩에는 선택 사항인 핀 버클 또는 폴딩 버클 모두에 섬세하게 숨겨진 퀵 체인지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습니다.

레이디버드 컬러즈의 케이스에는 2 캐럿에 육박하는 캐럿을 자랑하는 다이아몬드 59 개가 세팅되어 있으며, 34.90mm 18 캐럿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탑재된 1163 오토매틱 무브먼트의 리듬에 맞춰 박동합니다. 100 시간의 파워리저브와 실리콘 헤어스프링을 탑재하여 긴 여름날의 두 가지 필수 요소인 편안함과 정확성을 제공하며, 3 기압(약 30 미터)의 방수 기능을

갖추고 있어 해질녘에 수영을 즐기기에 적합합니다. 또한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섬세하게 장식된 무브먼트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. 여름을 상징하는 컬러풀한 스타일이 돋보이는 이 새로운 레이디버드 컬러즈는 디자인과 기능을 모두 만족시키는 타임피스입니다.

레이디버드 컬렉션

레이디버드 컬렉션은 여성 시계 역사에서 활약한 블랑팡의 선구적인 역할을 반영합니다. 1930년 제작된 최초의 여성용 오토매틱 손목시계부터 수십 년 전의 가장 작은 기계식 무브먼트와 정교한 현대식 디자인에 이르기까지, 레이디버드 컬렉션은 탁월함을 향한 블랑팡의 열정을 담고 있습니다.

블랑팡의 여성 시계의 역사는 1930년대 초, 시계 메종을 이끄는 최초의 여성 CEO가 된 베티 피슈데르의 결단력을 기반으로 구축되었습니다. 그녀의 지성과 예지력을 바탕으로 블랑팡은 주얼리 시계를 위한 길을 열고 세계적인 명성을 쌓았습니다.